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24호
6월 22일
2019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제68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한반도 안보불안에 경각심 일깨워야

한 교회에서 25년 시무 여전도사 '명예목사' 제도 인준 결의도



의장
신재영 목사
총회장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영 목사) 제68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가 지난 6월 17일(월) 오후 1시 총회본부에서 열려 한반도 안보 불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 북핵동 일을 위해 기도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한편 동성에 귀아축제로 인한 가처리의 혼란을 막고 동성

여자들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경기중앙지방회장 이은승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목사는 사 26:3 말씀을 본문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세'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원칙이 분명하고 그릇된 것과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함이 없는 교단에서 함께 하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전한 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좋아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꿋꿋이 건재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고 축복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꿈을 펼쳐가자고 강조했다. 교단 증경총회장 박영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의장 신재영 목사 주례로 열린 회의는 교단 증경총회장 이용주 목사의 개회기도 후 서기 정영진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 보고사항이 이어졌다. 보고사항에서 교단 총무 이경진 목사는 교단업무보고사항으로 68차 정기총회 성료, 해외선교사 목사안수, 제9회 전국사모연합회



축도
박영찬 목사
증경총회장



개회기도
이용주 목사
증경총회장



폐회기도
김양인 목사
증경총회장



대표기도
이은승 목사
경기중앙지방회장



사회
이경진 목사
총무



정기총회, 총회신학교·목대원 2019학년도 1학기 종강예배, 목대원 2019년도 상반기 계절학기 등의 내용이 보고되었다.

이어 재무 한순남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건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회전출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68차 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각 국장과 각 위원장이 각각 연임 또는 새로이 임명되었다.

또한 여전도사 '명예목사' 제도 인준 건으로 교

단헌법 제38조 목사구분 사항에 '12 명예목사'를 추가하기로 결의했으며, 명예목사는 한 교회에서 25년 이상 여전도사로 근무한 자로 하되 세부 시행규정은 해당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결의되었다.

기타사항으로 6월 20일(목) 제68차 총회 총회장 신재영 목사 취임 감사예배, 6월 27일(목) 제1회 고시위원회, 교육국 주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개최 등 각종 여름철 수양회와 각종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실행위원회는 증경총회장 김양인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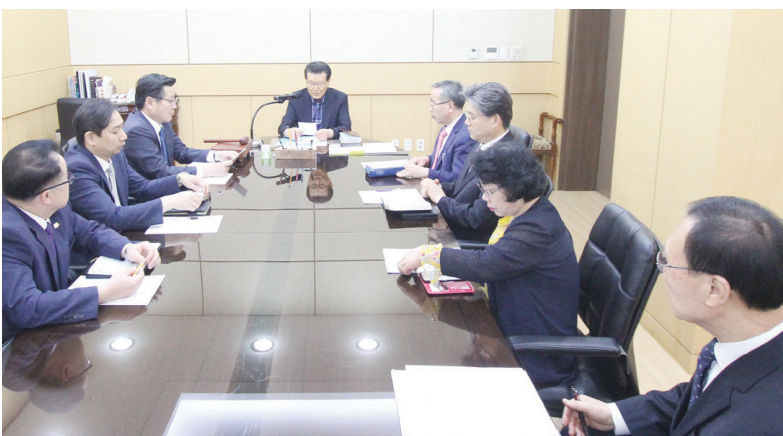
핵폐기 안보 위기 극복,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68차 총회 제2회 임원회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영 목사) 제68차 총회 제2회 임원회가 지난 6월 10일(월)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열려 WCC종교다원주의의 확산 저지와 동성애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의 핵 폐기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한 마음 되어 기도한 뒤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정영진 목사의 기도,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목사는 이날 하 1: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인생들은 어둠과 무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축도 후 곧바로 의장 신재영 목사 주례로 열린 회의는 서기 이경진 목사의 회원점명, 의장 신재영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가 이어졌다. 보고사항에서 교단 총무 이경진 목사는 교단업무보고사항으로 68차 정기총회 성료, 해외선교사 목사안수, 제9회 전국사모연합회 정기총회



등의 내용들이 보고되었다.

이어 재무 한순남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건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회전출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68차 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각 국장과 각 위원장이 각각 연임 또는 새로이 임명되었다.

또한 여전도사 '명예목사' 제도 인준 건으로 교단헌법 제38조 목사구분 사항에 '12 명예목사'를 추

가하기로 결의했으며, 명예목사는 한 교회에서 25년 이상 여전도사로 근무한 자로 하되 세부 시행규정은 해당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실행위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기타사항으로 총회신학교·목대원 2019학년도 1학기 종강예배, 목대원 2019년도 상반기 계절학기 개강, 6월 20일(목) 6월 27일(목) 제1회 고시위원회 제68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등 각종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프루도초장은
바람은
바람은
바람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고난을 대응하라'

조용목 목사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출 14:10~14)

‘고난’이란 몸이나 마음이 괴로운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슬픔, 외로움, 두려움, 근심, 고통, 상실, 수치, 울적함 같은 매우 다양한 상태를 포괄합니다. 고난이 면제된 사람은 없다는 사실과 고난은 그것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태도에 따라 미치는 영향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고난의 문제를 잘 다루는 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고난의 문제를 놓고 깊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삶에 고난이 필연적인 것이 된 까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연고로 에덴에서 쫓겨났고 땅은 저주를 받아 땅이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가시는 상처와 고통을 주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 땅의 어느 곳든지 인생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생과 고난은 늘 함께합니다.

둘째, 고난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대응은 다양합니다. 자멸자극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속병으로 알고 굴종하는 사람, 고난이라는 숙명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 패력으로 고난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 고난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하려고 애쓰는 사람, 염세주의자가 되거나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고난에 대한 이해와 대응책을 성경에서 얻어야 합니다. 성경은 세 종류의 고난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고, 아담의 범죄에 연관되어 자신의 잘못과 관련이 없는 고난이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에 의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을 당할 때는 곧장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에 당하는 고난에 대한 대응책이 본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앞에 당도하여 진퇴양난의

곤경에 처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친 명령은 우리가 환란과 고난과 난관에 처하였을 때 취할 신앙적 태도에 대해 모든 요점을 명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직면한 곤경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은 당면한 고난의 본질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열린 길로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뒤쫓아 비로의 군대가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니 하나님께서 물이 다시 흘러 그들을 다 덮고 하느님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셋째, 고난으로 말미암는 유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만들어주고, 새속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하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태도로 살게 하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자에게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적절한 도움을 예비해두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고난 중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과 충성의 진실성을 나타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참담한 생활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과 충성을 나타낼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도바울, 마르틴 루터, 아펜데그는 결박되어 용광로에 던져질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과 충성을 나타낼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 하나 되는 일이 없는 암담한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과 충성을 나타낼 기회로 삼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고난을 이해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통해 얻게 된 유익에 대해 간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여전도사 명예목사 임직식,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열려

은혜와진리교회 여전도사 명예목사 임직식이 지난 6월 17일(월) 안양성전 아가페성전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열려, 감지선 교무처장을 비롯 에스더회 소속 전도사 등 8명의 여전도사들이 명예목사로 임직되었다.

교단 정책위원회의 결의와 실행위원회의 인준으로 여전도사 명예목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교단헌법에 의거, 당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나이와 근무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8명의 여전도사가 이번 명예목사 임명을 받았다.



전 교역자들이 참석하여 거행된 임직식에서 당회장 조용목 목사는 감지선, 윤영열, 김정렬, 이지영, 단영자, 박정자, 임상희 전도사에게 각각 명예목사 임직증서와 임직패를 수여하고 더욱 착하고 충성스러운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직 기도만이 나라를 살린다”

‘나라를 위한 다니엘 기도운동’ 설립…기지협 외

한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한반도 정세와 좁혀짐 나이지 않는 경제 위기, 극단적으로 치닫는 이념 및 지역 갈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교회 가 나섰다.

신신목 목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와 김동권 목사(합동 증경총회장), 최병두 목사(통합 증경총회장), 김진호 목사(기갑 증경감독회장) 등 현 교계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 50여 명이 모여 나라를 위한 기도모임을 구성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2일(수) 서울 광화문 코리안호텔에서 ‘나라를 위한 다니엘 기도운동’(회장 이정춘 목사) 설립예배를 드리고, 국가와 교회의 총체적 위기 앞에 대대적인 구국 기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날 설립예배는 대표고문 신신목 목사의 사회로 장병만 목사(기민협 상임회장)의 기도과 태필린 찬양단의 특별찬양에 이어 상임고문 김동권 목사가 ‘국가(국민)를 살리는



기도운동’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김 목사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국가의 현실이 매우 위태롭다. 의사가 병을 바로 진단치 못하면 병을 고칠 수 없듯이, 지금 우리 나라의 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 이 땅에는 허황된 평화가 넘치고 있다. 참으로 위험하다. 이 땅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나라의 위기는 기독교인들이 해결해야 한다. 기도를 해야 한다”면서 “하나 한국교회

에 기도가 상실됐다. 기도의 열기를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 기도만이 나라를 살리고 경계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김영은 목사(기지협 이사)가 나라를 위한 다니엘 기도운동의 성공을 위해, 김응권 목사(나라사랑기도회 부회장)가 ‘혼란한 시국이 하나님의 방명으로 안정되기 위해’, 전용만 목사(기지협 공동부회장)가 ‘북한공산정권이 붕괴되고 자유평화통일이 되기 위해’라는 주제로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한교연, 한국교회 본질 회복 비상특별기도회

제8-2차 임시총회 시국 성명서 발표 결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6월 11~12일 충남 대전 한상의바다리조트에서 한국교회 비상 특별기도회와 제8-2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의 섬김과 본질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한교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차로 한 달간 전국 50여 개 기도원을 중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의 하나됨과 본질 회복을 위한 비상 특별기도회가 전국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임원 및 실행위원, 총대

등 70여 명이 1박 2일간 비상 특별기도운동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일 오후에 시작된 비상 특별기도회는 추진위원장 신광준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원종문 목사(법인이사)가 기도하고 공동회장 홍정자 목사(전리 총회장)가 성경을 봉독한 후 공동회장 박만수 목사(개혁개신 총회장)가 ‘자유 평화 통일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상임회장 김효종 목사(호헌 총회장)가 ‘한국교회 섬김과 회개, 본질 회복을 위해’, 공동회장 안태준 목사(대신 총회장)가 ‘정교분리와 종교의 고유권 탄압 중지’를 위해 각

각 기도하고 참석자 모두가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요한3서 5~15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첫제도 기도, 둘째도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회장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방법과 무기는 기도밖에 없다”고 말하고 “한국교회연합이 한 달간 1차로 시작한 비상특별기도운동을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 될 줄 믿는다”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잊지 말자”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의 싸움은 육적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라며 “내 가치관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 기도에 전념하면서 한국교회의 본질 회복에 앞장서자”고 호소했다.

한 시간 넘게 진행된 기도회는 공동회장 송태성 목사(교려개혁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국교회법연구원 창립 15주년 감사예배 드려

교회의 신성과 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 15년사에 담아내

한국교회법연구원은 지난 6월 11일(화)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창립 15주년 감사예배 및 축하행사를 갖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예언애설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이날 ‘한국교회법연구원 15년사’를 발간해 헌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계기를 다졌다.

교회 지도자들의 영성과 선한 지성의 함양을 도모하고 교회법 상담을 통해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온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장로)이 창립 15주년을 맞았다.

이날 행사에 앞서 드린 감사예배에는 이효종 장로의 인도로 문성모 목사(전 서울장신대 총장)의 기도, 김영수 장로(재무이사)의 성경봉독, 김순권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롬 7:21-25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의 갈등과 분쟁의 해결을 위한 15년’이란 제하의 설교를 통해 “갈등은 사람이 사는 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 갈등 자체가 없다고 하면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선과 악의 싸움이 있다.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본질과 싸움으로 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더욱 관심을 갖고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효종 장로(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축하행사에서는 한국교회법연구원 15년사가 헌정됐고, 이사장 김순권 목사가 원장 김영훈 장로(초대 이사장)와 이사 안광수 목사(초대 서기이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대한성서공회, 131회 정기이사회

이사장에 김동권 목사, 부이사장에 정하봉 목사



대한성서공회 제131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5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서초성서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부 기도회에서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

(United Bible Societies)의 총무 마이크 페로가 내한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상, 우리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2부 회부처리에서는 신 이사 중 교단대표

로 이현식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정만희 사관(구세군대한분영), 김웅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신상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가 소개되고, 찬성회원 대표로 최규환 장로, 김현배 목사, 손인웅 목사, 정하봉 목사가, 감사로는 정명철 목사, 송영훈 장로가 소개되었다. 이어서 권의현 사장의 사장보고와 사업보고가 있었다.

안건으로는 신 임원으로 이사장에 김동권 목사, 부이사장에 정하봉 목사, 서기에 양병희 목사, 회계에 이선균 목사가 선임되었고, 실행위원에는 김현배 목사, 김순권 목사, 이정익 목사, 손인웅 목사, 김경원 목사, 이용호 목사가 선임되었다.

한장총 임원진, 언더우드 선교사 사역지 탐방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에서는 지난 6월 7일(금) 회원교단 총회장 및 한장총 임원 총 31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장로교의 날 기념행사로 ‘장로교역사 탐방’을 김포 양촌, 인천 지역의 언더우드 선교사 사역지를 돌아보는 일정을 가졌다.

이날 탐방에는 전분기인 이종전 교수(전 대한신학대학원 역사신학교수)가 분봉지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29교회 중 남은 19개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데 이번에는 김포제일교회, 누산교회, 인천제일교회를 탐방했으며 한국100주년기념탑(인천 중구 항동1가), 극동방송 옛 자리(인천시 중구 북성동3가), 선교사기념공원(인천시 중구 송월동3가)도 방문했다.

김포제일교회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의 서명이 있는 당회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종전 교수는 설명을 통해 ‘언더우드와 그의 기적이 연세대학교 설립을 위한 모금에 언더우드 선교사 형이 언더우드 타자기 사업을 통해 많은 재정지원을 했다’는 사실과 ‘언더우드 4세가 2004년 한국을 떠날 때 환송식이나 기자회견, 어떤 형태로의 보상을

전격 사양하고 비행기 시간을 바꾸어서까지 빈손으로 떠났다’는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가자들은 한국교회사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전해 들으면서 오늘날의 한국장로교회의 성장의 밑거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의 가정의 공헌에 대해 더욱 알게 됐다는 반응이었다.

월드뷰티, 장수사진전달식 개최

신한뷰티서포터즈와 함께 뷰티서비스도 실시



국제뷰티구호개발 NGO (세월드뷰티원즈(이사장 장현일, 회장 최에스터 신한대 교수/이하 WBH)는 지난 6월 1일(토) 마포롯데이케어센터에서 소외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뷰티서비스 실시와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한 장수사진 전달식도 가졌다.

이날 뷰티서비스와 장수사진 전달식을 주관한 신한대학교 뷰티재능나눔동아리인 신한뷰티서포터즈(SBS) 최에스터 지도교수는 “어렵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뷰티서비스를 제공과 함께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한 장수사진 전달을 통해 어려운 어

르신을 섬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장현일 WBH 이사장은 “뷰티서비스와 함께 어르신들께서 장수사진을 받고 기뻐하시며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끼며 사랑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장수사진 전달식에는 조순환 할머니(101세)조옥렬 할머니(89세)등 22명의 어르신에게 장수사진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는 장민욱 사무국장을 비롯한 신한대학교뷰티헬스전공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재능기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신한대학교 뷰티재능나눔동아리인 신한뷰티서포터즈(SBS) 봉사단은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 전공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뷰티서비스를 지원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세기총-로고스, 업무협약 체결

법률자문 의뢰·상호 정보 제공 및 교육의 공동시행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낙신 목사, 수석상임회장 윤보환 목사/이하 세기총)는 법무법인(유한) 로고스와 지난 5월 28일(화) 오전 11시 30분에 법무법인 로고스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 약정식을 가졌다.

이날 약정식에서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법무법인(유한) 로고스와 상호교류협력 약정식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

서 법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기관이 함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다문화사역, 평화통일 기도운동 등 세기총의 주요 사역을 설명하였다.

법무법인(유한) 로고스의 김무겸 대표변호사는 “750만 한국인 디아스포라와 함께하는 기독교기관인 세기총과 함께 협력 사역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고, 김건수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로고스



도 다문화사역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세기총과 함께 다문화사역을 함께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이날 약정식에서 교류협력분야로 1) 상호 사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2) 상호사역에 필요한 교육의 공동시행 및 상호이용 3) 상호사역에 필요한 서비스의 교환 4) 상호사역에 필요한 연구의 공동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교류협력특약에서는 1)세기총은 로고스에게 제반 법률자문을 의뢰할 수 있고 로고스는 성실히 응하며 2)로고스가 세기총의 법률자문의뢰에 대하여 답변을 함에 있어 검토, 연구 등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경우 세기총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3)로고스는 위 약정의 경우 여타의 일반적인 약정조건보다 비용 면에서 우대하기로 약정하였다.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학원목회 연구회 컨퍼런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미국 유학생 및 한인 디아스포라 청년대학생 선교에 헌신하는 학원도시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선교현장의 생생한 간증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마련됐다.

미국장로교(PCUSA)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학원목회 연구회에서 주최한 이번 2019년 학원목회 연구회 컨퍼런스는 6월 3일(월)부터 6일(목)까지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담임 조은성 목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생동감 있게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미국 전역에 산재한 대학이 있는 캠퍼스 타운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얼굴을 맞대고, 살아 있는 미래인 청년들을 어떻게 섬기며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며 청년 선교의 해답을 찾는 기회를 가졌다. 개회예배 강사로 나선 임성철 목사(테네시, 트라이아시티한인교회)는 복 8:4-15 말씀을 본문으로 “좋은 토양을 준비하라”는 제

하의 설교를 통해, “학원목회의 결실은 좋은 영적 토양에서 나온다”면서 “인위적인 부흥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 청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순복음교회 성전건축 완공 입당감사예배

경남지방회



권우석 목사

경남지방회(회장 권우석 목사) 창원순복음교회(담임 권우석 목사)는 성전건축을 마무리 짓고 지난 6월 6일(목) 교계 및 교단 인사들과 성도들이 새성전을 가득

메운 가운데 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입당감사예배는 지방회장 권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창원기독교연합회 회장 남일우 목사(예장 고신)의 대표기도, 이성진 목사(순복음진주엘렌교회)의 성경봉독, 창원순복음교회 시온성가대의



찬양, 교단 증경총회장 김상용 목사(영주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창 13:14-18 말씀을 본문으로 '바라보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 주

신다"고 전제하고 "마음에 소원을 갖고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강조한 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라며 창원순복음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했다.

이어 경남지방회 부회장 황용연 목사의 헌금기도, 김윤우 형제의 특별찬양 후 2부 축하 순서로 예장 합동 권혁길 목사(은광교회)의 권면, 예장 통합 배효진 목사(영원중앙교회)의 축사가 있었으며 권우석 목사는 교회건축을 위해 수고한 이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공로를 치하했다.

한편 창원시 박완수 국회의원이 축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건축위원장 이상배 장로의 건축결과 보고 및 광고 말씀을 전한 뒤 교단 증경총회장 박영찬 목사의 축도로 입당 감사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창원순복음교회는 이번 건축으로 1층 110평, 2층 110평, 3층 40평, 4층 40평이 완공되어 총건평 300평 규모의 새성전이 완성되어 입당하게 되었다.



목사임직 감사예배 복음전과 다짐

경남지방회

경남지방회(회장 권우석 목사)는 지난 6월 9일(주일) 오후 5시 순복음은혜로교회에서 목사임직감사예배를 드리고 회명에 전도사, 고동혁 전도사, 이형은 전도사를 목사로 임명하였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유영주 목사(엘렌교회)의 사회로 증경지방회장 윤성수 목사(진주은평교회)의 대표 기도, 서기 박규섭 목사(하목한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권우석 목사(창원순복음교회)의 막 10:43-45 말씀을 본문으로 한 '부름받아 나신 이 몸'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 후에는 사회자의 예식사와 임직대상자 호명 후 안수위원장 권우석 목사의 서약이 있었으며, 안수위원의 안수기도와 착의, 악수례에 이어 안수위원장의 공포와 임



직패 수여가 이어졌다.

부회장 황용연 목사(은혜와평강교회)와 총회 회계 김건수 목사(제주한미음교회)의 권면, 총회 서기 정영진 목사(부산순복음갈릴리교회)와 GOODTV부흥사협회 대표회장

안병찬 목사(순복음참아름다운교회)의 축사, 엘렌교회 청년부의 축가로 임직자들을 축하한 후 회명에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의 인사 및 광고 증경총회장 박영찬 목사의 축도로 목사임직감사예배를 마쳤다.

월례회 갖고 지방회 발전을 위해 기도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한순남 목사)는 지난 6월 11일(화) 오전 11시 순복음반송교회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조은혜 목사(순복음빛교회)의 사회로 채무 김명주 목사(순복음열광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한순남 목사(순복음반송교회)의 대상 4: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한 목사는 '지경을 넓히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관용의 지경, 사랑의 지경, 이해의 지경을 넓혀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권면했다.

회계 최계순 목사(은혜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증경 지방회장 박용호 목사(순복음오일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제주한마음교회, 오지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담임 김건수 목사)에서는 지난 6월 6일(목) 오지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바자회는 오는 8월 단기선교지역을 앞둔 청년팀 22명에게 힘을 실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회 성도들은 필리핀 오지(산지족) 영혼들과 빈민가 어린이들에게 복음과 함께 약품, 의류, 쌀, 생필품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 '빈민의 행복'이라는 바자회 티켓을 판매하여 일일시당 및 선교후원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성도들이 손수 만든 김치와 장아찌를 비

롯한 각종 반찬류와 아나바다 제품 등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선교지역지 후원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지인들을 초청하여 교회를 소개하고 여러 명의 전도대상자들을 결신시켜 교회에 출석하기로 약속받은 소중한 기회도 되었다.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기도하며 사명 감당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정석현 목사)는 지난 6월 11일(화) 동방의빛교회(담임 이미경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각종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이미경 목사의 찬양인도에 이어 서성영 목사(북원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진태 목사(선한열매교회)의 기도와 사회자의 성경봉독, 사모 종찬단의 은혜로운 특송 후에 증경지방회장 김남수 목사의 설교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창 22:1-14 말씀을 본문으로 '번제로드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묵묵히 십자기를 지셨음을 상기하면서, 때론 우리에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시련도 믿



음을 가지고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알고 더 열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김미영 목사(열린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와 병원에 입원중인 최병일 목사와

동방의빛교회를 위한 통성기도 후에 정석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6월 월례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동방의빛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눈 후에 인근 어울림공원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성령님의 은사로 하나님나라를 유익하게 해야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이은승 목사)는 지난 6월 11일(화) 오전 11시 산성교회(담임 이정옥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윤두환 목사(호평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조광선 목사(반석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이은승 목사(은혜외승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성령강림절에 즈음하여 '성령님의 은사'라는 설교제목과 가지고 미리 준비한 자료를 공유하며 세미나 형식으로 은사에 대하여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주신분의 인격이 배어 나와야 함을 전제하고, 우리가 외적

은사도 많이 받아야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그것을 내적 은사로 승화시켜 인격과 삶이 변화됨은 물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나라를 유익하게 하느라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회계 김정순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와 증경회장 윤정현 목사(송전교회)의 축도로 은혜로운 예배를 마쳤다. 곧이어 속개된 월례회에서는 지방회장 이은승 목사의 진행으로 각종 회부 처리를 하였는데, 특히 10월 월례회를 기을 아우회를 겸하여 속초에서 갖기로 결의하였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산성교회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부대음식으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나누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같은 정을 나누었다.

이후 회원들은 남양주시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돌의 정원)으로 자리를 옮겨 피란 하늘과 구름, 물과 전디와 빨간 양귀비꽃이 어우러진 대지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노래하였다.



처음과나중교회 김규란 목사임직 감사예배

서울중앙지방회

서울중앙지방회(회장 김덕영 목사)는 지난 6월 3일(월) 오전 11시 내발산동 소재 처음과나중교회에서 가족과 성도 및 지방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과나중교회의 담임인 김규란 전도사의 목사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임직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기성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방은혜 목사의 기도와 지방회장 김덕영 목사의 설교에 이어서 안수식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겔 3:22-27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받고 대언 하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의 종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며 "첫째로, 외적, 내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맡기신 사명을 감



당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성별된 존재가 되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기록하게 쓰임 받는다. 이를 위하여 목사는 늘 영적으로 깨어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임직 서약과 안수 위원들의 임직을 위한 안수기도와 기운찬의식 그리고 임직증서와 임직패 수여, 권이옥 목사의 축사와 임춘동 목사의 권면에 이어 임직자의 담사와 김덕영 목사의 축도로 은혜롭고 기록하게 임직 예배를 마쳤다.

■ 생명의 말씀 ■



정형기 목사

· 교단 재판위원장 역임
· 즐거운우리집요양원 이사장
· 자유통일호국동지회 대표회장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신령해야 복을 준다고 하지 않고 정직해야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신 6:18)

정직은 히브리어로 ‘하시르’인데 ‘솔직한, 공정한, 진실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은 성도의 의무이며, 신앙의 기본이며, 의인의 징표입니다. 또한 사람은 본래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국민 4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인 대한민국에서 부정과 부패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정직하게 산다면 비닷물의 0.6%가 물을 정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얼마든지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길은 무엇

입니까?

1. 거짓증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 하지 말라”(출 20:16)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사기는 안되지만 거짓말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신성모독이며 심판 날에 심판 받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마 12:36)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제 거짓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요 8:44)

초대교회 성도인 아나니아와 삽나라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땅값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사도 베드로를 속였습니다. (행 5)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니라”(행 5:3-4)

우리가 기도하다 음성이 들려오면 첫 번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건 우리 자신의 음성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나? 그래도 순종치 않고 시간이 지나면 세 번째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건 마귀의 음성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나라 부부도 첫 번째 음성에 즉시 순종치 않고 틈을 들어다가 결국 세 번째 마귀의 음성을 듣고 거짓말을 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즉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정직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전하시고 정직하시니...”(시 25:8)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신 6:18),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년세는 짧아지느니라”(잠 10:27)

“여호와 하나님은 해오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를 영화를 주시며 정직이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이끼지 아니할 것이요”(시 84:11)

여기서 좋은 것은 파라클레토스 즉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면 성령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 그 자체이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살아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그럼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까?

1)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한 영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 51:10)

정직한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영접할 때만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기도해야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잠 30:8)

정직하게 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정직하게 살 수 없습니다.

눅 18장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만 신령하고, 죄를 안 짓고 의무를 다한다고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드려나

이다”(눅 18:11)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일음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천국에 못가지만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 못가도록 방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자기 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마 23:13)

반면에 눅 18:13 말씀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눅 18:1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만 잘 알고 달달 외는 바리새인은 저주를 받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는 세리와 같은 회개기도를 하는 정직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욕심을 버려야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려고 상대를 속이게 됩니다.

“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잠 30:8)

정직한 지도자는 3가지에 깨끗해야 합니다. 첫째 돈, 둘째 명예, 셋째 이성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욕심이 거짓과 부정과 부패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정직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증거 하지 마십시오. 정직해야 능력을 받고, 정직해야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직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계도 경성할 것은 3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할 때에 다른 목소리로 맞받아치지 않았다. 현재도 잠잠하나 다수의 목소리를 대산하여 용감하게 외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공격은 적절치 않다.

기독교인은 개인으로서 국민의 권리가 있으며,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그것은 조국을 잃었을 때에 그 고난의 역사를 보아왔으며, 공산주의 치하에서 교회는 멸절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우리 정부가 이렇다가 국가를 공산주의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현 정부의 정책과 대북관계, 그리고 대통령의 언행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본제인 대통령은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며은 국민의 대통령이다. 이에 겸손하게 국민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국정 방향을 재정비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키라

동 정

서울신대학교 황덕형 신임총장



서울신학대학교 제19대 총장으로 황덕형 교수가 선출됐다.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 이사회는 지난 5월 17일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황덕형 교수를 차기 총장으로 선출했다. 오는 9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인 황덕형 교수는 “섬김의 정신으로 당면과제인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황교안 대표, 한기연 간담회 방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6월 13일(목) 오후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인 연합회(대표회장 심영식 장로) 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황 대표의 이번 간담회 참석은 지난 3월 2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기독교 단체 방문이다.

‘마포구 좋은 마을’ 장한일 위원장



장한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생명나무교회 목사)가 지난 6월 5일(수) 2019년 마포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심의 위원회에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으로 재위촉받았다. 마포구는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정신을 함양해가는 대표적인 자치구이다.

가수 조성모 신앙간증 이야기



9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가수 조성모가 최근 첫 CCM 앨범을 발매하며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 방송 최초로 신앙 간증에 나섰다. 조성모는 “가수로 살아온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했다”라며 지난 시간 동행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교계 시국 성명, 대통령은 그 목소리를 들어야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던 불쌍한 우리 민족에게 135년 전에 복음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음을 믿는다. 일제에 의한 식민지 치하에서 민족과 함께 고통받은 애국의 종교 기독교에 대하여 민족주의 애국자들이 말한 바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또한 조국의 교회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국가적 책임이 있음을 믿는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매우 위험한 시대를 만났다. 북한 김일성 왕조의 핵무기 제조가

촉발한 긴장관계는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뿐 만이 아니라, 미·중·일·러 등 국제적으로도 매우 위중(危重)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때에 온 국민들의 한과 지혜를 모아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정부 존재의 의의가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는 끊임없이 김정은 정권을 감싸는 태도로 인하여 국민들은 물론 우방들에게도 오해와 분노를 사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왕조의 폭압 아래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회복시켜주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애써 외면하는 것도 이상하게니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연속된

발언과 한·미동맹을 해할 수 있는 언행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지나친 것이다.

전 세계로 전해지는 공적(公的) 자리에서 행한 대통령의 발언, 간접이었든 ‘신명복을 존경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하여 소련 공산주의자들,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합세하여, 우리 민족 역사의 최대 비극인 6.25 침략전쟁을 일으킨 원흉 중에 핵심인 김원봉을 애국자라고 추켜세웠다. 그 장소도 6.25 전쟁에서 조국을 수호하다가 전사한 고귀한 영웅들을 모신 현충원에서, 우리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는 지금까지 받은 총격에 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국가적 위기와 극복을 위하여 국민통합에 힘써야 하는 대통령이 지지 세력과 반지 지 세력의 갈등 구도를 만들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은 전에 없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국가 안보, 동맹국 간의 관계 등 어느 것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모든 책임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 가운데 나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우국충정의 목소리를 듣고, 진실 앞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단체를 혼돈시키거나, 애국가 개인들에게 공격을 가하는 태도는 매우 잘못되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인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형신학으로 변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유행하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에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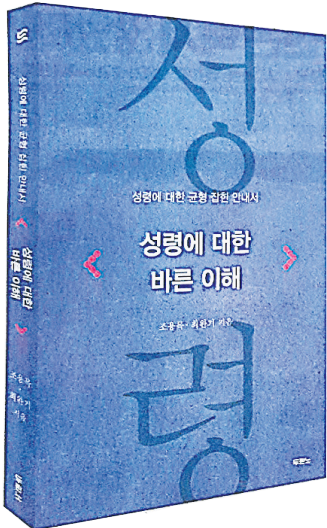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등, 오직 성경을 근거으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자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 하나님의교회 실행위원이다.

저자 최완기 목사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목양포커스

국가인권위 동성애독재 강력 대응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월 20일 동성에 행위를 반대하는 것을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혐오차별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이하 '혐오차별특위')를 출범하였다. 혐오차별특위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인권위의 동성애 독재를 단호히 반대하고, 이를 강력 저지하기 위하여 2019년 6월 14일 서울 코리아호텔에서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서울대 법대 최대권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혐오차별특위의 출범은 지금까지 인권위가 적극 시행해 오던 동성에 옹호 조장 활동을 넘어서,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반대의 자유를 모두 박탈하고 탄압하여 동성애에 대하여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동성에 독재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계획과 활동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인권위 혐오차별특위의 궁극적인 목표인 동성에 차별금지법(인권기본법, 혐오규제법, 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된 유럽, 북미 국가들에서는 동성애자라는 사람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동성에 성행위라는 비정상적 성행위를 양심, 신앙, 이성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만 해도 조사 받고, 벌금이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책임을 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자격이 박탈되는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도 2001년 이래 동성에 반대를 차별로 규정하고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를 차단하는 동성에 반대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수많은 활동을 해 왔다.

동성에 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차별과 혐오로 규정하는 인권위의 동성에 독재를 강력히 대응하기 위하여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 독재 대응 비상대책위] (이하 동대비상위)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9년 6월 14일 서울 코리아호텔에서 개최된 발족식을 통하여,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헌법학,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정소영 미국변호사를 총무로 각각 추대하였다. 동대비상위는 첫 번째 행사로 7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집값운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한 학술포럼을 갖는다고 밝혔다.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차별대응특별



추진위원회' (이하 '혐오차별특위')를 출범시키면서, 동성애자(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응활동을 펼쳐나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번 혐오차별특위의 출범은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 시행해 오던 동성에 옹호 조장 활동을 넘어서, 이제는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반대의 자유를 모두 박탈하고 탄압하여 동성애에 대하여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동성에 독재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계획과 활동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특위의 궁극적인 목표인 동성에 차별금지법(인권기본법, 혐오규제법, 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된 유럽, 북미 국가들에서는 동성애자라는 사람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동성에 성행위라는 비정상적 성행위를 양심, 신앙, 이성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만 해도 조사 받고, 벌금이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책임을 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자격이 박탈되는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도 2001년 이래 동성에 반대를 차별로 규정하고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를 차단하는 동성에 반대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수많은 활동을 해 왔다. 혐오차별특위는 동성에 반대자를 혐오세력으로 낙인을 찍어 더 본격적으로 정당한 반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분명하다.

혐오차별특위는 그간 해외 사례와 국가인권위 활동들에 비추어 보면 동성에 성행위가 조려하는 심각한 보건적·도덕적·사회적 유해성과 폐해 때문에 그 행위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혐오세력으로 몰아세워, 동성에 성행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혐오를 부추길 것이고, 동성애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동성애와 동성에 성행위에 반대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를 박탈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시도하는 동성에 차별금지법과 혐오차별론의 본질이 동성에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동성에 독재법논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와 혐오차별특위를 통해 실현하려는 동성에 독재에 단호히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들이 동성애와 동성에 성행위에 대한 실상을 바로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의 어린 청소년들을 유해한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동성애와 동성에 성행위 비판, 반대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켜내기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동성애독재국가 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에 반대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인권 탄압에 단호히 맞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국민 여러분들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호소 드린다.

2019. 6. 14.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 방향 제시

미래목회포럼, 장순흥 총장 기조연설, 이동규 목사 등 강사로

한국교회의 다음세대 사역의 해법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목회포럼(대표 김봉준 목사)과 4/14원도우포럼(대표회장 장순흥 박사)이 공동으로 포럼을 지난 6월 10일(월) 개최했다. 양재 롯데호텔 관 기쁨홀에서 열린 포럼은 '다음세대 미래 교육/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다음세대 목회전략도 논의됐다.

포럼에 앞서 미래목회포럼과 4/14원도우포럼이 다음세대 교육과 목회동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다음세대 관련 연구 결과와 지문, 교육 훈련 프로그램 공유 △공동 연구 및 포럼, 세미나 개최 △정부기관, 교회 지도자, 교회, 다음세대 사역기관, 사역자, 선교사, 학부 등 다음세대 교육 및 목회에 임할 것을 촉구, 대안 제시 및 홍보를 협약하기로 했다.

김봉준 대표(이후길사랑교회)는 환영사를 통해 “미래는 지금 우리 선택에 달려있다”며 “현재 상태에 놓인 한국교회에 새 시대에 맞는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성장을 멈춘 현실을 바라보면 많은 요인이 있었지만 교회와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과 경각심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목회자와 성도들의 영적 회복과 올바른 다음세대 양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전한 정성진 이사장(거룩한빛광성교회)은 “행동하는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음세대를 위해 과감하게 지금 바로 내어놓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작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전해야 할 구체적인 사령의 표현은 다음세대를 섬기며 시대적 코드를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지금 바나바를 기억하며,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에 '바나바 정신'을 가져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고 전했다.

격려사를 전한 고명진 목사(미래목회포럼 다음세대위원장)는 “4차 산업혁명은 국가와 기업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역시 영적 해안을 가지지 못한다면 도태되고 말 것”이라며 “역사의 위기는 끊임없이 찾아왔지만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도화된 기술이 하나님을 잊게 한다는 위기감을 주지만,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는 기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지금 우리의 목회와 다음세대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과 도전의 시간

이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장순흥 총장(한동대는 현재 기독교가 당면한 생명 경시 풍조와 사회적 인식 추락, 이로 인한 전도와 선교 약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경 창세기 1장의 창조 신앙이 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장 총장은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고, 물질에서 저절로 생명이 만들어질 수 없다. 모든 생명체는 설계됐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체가 살아가 수 있도록 우주와 지구를 완벽히 설계하신 것”이라며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생명체에도 설계도가 필요하다. 물론 설계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안중배 교수(한세대, 국제미래학회 회장, 미래목회포럼 정책자문위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독교 다음세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했다.

안 교수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경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인재 역량”이라고 정의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는 교회 교육을 통한 다음세대 부흥의 기회다”고 역설했다.

안 교수는 “기독교 가치관 위에서 창의성과 인성, 개성과 자긍심을 갖춘 미래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이 한국교회의 최대 과제”라고 말하며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교육방법과 내용, 시간, 장소, 대상 등 다음세대 교회교육의 변혁이 요구되고 있음을 피력했다.

안 교수는 “미래목회포럼에서 조사한 결과 어린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설교방식은 드라마나 영상 사례를 보여주거나 동화를 들려주듯 이야기식으로 하는 방식이었고, 부모들은 교회학교로 인해 원인으로 교육방법이나 프로그램에 꼽았다”며 “교회학교 교육이 다음세대 맞춤형, 체험형 교육방법으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창원복국동교회 청의체협교실, 바이블스 토리로 코딩 배우기, 스마트 바이블, SNS 전도, 특별활동 등

아리 등 장소와 시간, 방법의 다양화 된 전략들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4/14원도우한국연합 시무총장 허종학 장로는 2019년 4/14원도우포럼 여잔디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급속도로 일어나는 변화에 기독교세대가 어떻게 적응할 것이며, 자녀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목회할 것인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세상이 급변할지라도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 품는 세대로 세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때에 미래목회포럼과의 협력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다나엘 같은 용사를 배출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직과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

성원 박영률 목사의
칼럼집

봄은 언제나 겨울을 이긴다



▲박영률 저(사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나로 선 사상과학사 간
p235 / 값 15,000원

이 책은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는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현역에 있을 때나 떠난 후에도 침묵하지 않고 할 말을 하면서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이 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도 죄”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성원 박영률 목사가 7년 간 복음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묶어서 발간한 책이다.

박영률 목사는 목회자로, 교육자로, 문학인으로, NGO운동가로 43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왔다.

저자 박영률 목사는 이번 칼럼집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칼럼마다 날짜를 밝혔으며,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자는 침묵하지 않고 있었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책의 수익금 모두는 특수지역의 교육선교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박영률 저(사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나로 선 사상과학사 간
p235 / 값 15,000원

2019년 6차 조찬기도회, 나라를 위해 힘써 기도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지난 6월 11일(화) 오전 7시 온양온천감리교회(담임 정병한 목사)에서 2019년도 6차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인홍규 목사(한사랑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 먼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새소망교회)는 환영사를 통해 “500년 전 종교개혁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초대교회운동이었듯이 민족복음화운동은 말씀회복운동이다.”

동성애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현실로 만드는 시국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며 시국의 위기에서 4년째 매월 모여 기도하는 조찬기도회에서 참석하여 회원들을 환영하고 힘써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광로 목사(아산중앙침례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김소은 감독(온양온천감리교회 원로)은 마 6:10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우리나라의 건국과 6.25전쟁의 위기에서 초량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기도하여 국난을 이겨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



는 것을 알고 힘써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강상철 목사(시온감리교회원로)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임용석 목사(아산중앙로교회)의 사회로 열린 2부 기도회는 먼저 성령충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목기도로 ‘민족복음화와 아산시기독교연합회를 위하여’ ‘국익수복을 위하여’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구제법 목사(예향감리교회)가, 그리고 ‘정치지도자들과 패스트트랙반대를 위하여’ 황기식 목사(동산장로교회)가, ‘성령증정체와 인권조례안 반대

위하여’ 최순식 목사(새침교회)가, ‘아산시복음화를 위하여’ 이은혜 목사(평안교회)가 기도를 인도하였다. 연이어 3부 순서에서 이명수 국회의원의 현 국정에 대한 보고를 하였으며 박성기 교수의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공지사항에서는 연합회 이기연 목사의 연합회 진중세례식에 대하여 보고하고 9월 추계부흥회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고 6월 23일 오후 4시 천안종합터미널광장에서 갖는 바른인권위원회연합회의 국국기도회에 적극 참여하기를 당부하였다.

제천순복음양문교회, 제4차 임직감사예배

충주지방회

충주지방회(회장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담임 김기진 목사)는 지난 6월 9일(주일) 오후 5시 동교회에서 제4차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임직감사예배는 증경지방회장 윤병하 목사(한우리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회계 이범구 목사(새생명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양문교회 여성교회의 특송, 지방회 서기 박성환 목사(달천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총회장 신재영 목사(새김전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수 11:15 말씀을 본문으로 ‘순종’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한 것과 같이 임직자들도 순종의 본을 보여 목사의 사역을 돕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에스터 목사(가나안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양문교회 이창수 안수집사의 헌금 특송으로 1부 예배를 마치고 이어진 2부 순서는 지방회장 김기진 목사(제천순복음양문



교회)의 집례로 이종진 장로의 은퇴, 장로장립 박기태, 안수집사 이정민, 권사취임 한정원, 전영희의 서약, 안수, 공포, 임직패 수여에 이어 양문교회 김에스터 청년의 축기가 있었다.

이어진 축하순서로 이환권 목사(충주은혜외전리교회)의 권면, 진현백 목사(선한이웃교회)의 축사, 임직자에게 회환증정이 있었으며, 임직자 대표 박기태 장로의 임직자 인사 및 광고, 증경지방회장 윤병하 목사(한우리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양문교회 제4

차 임직감사예배를 하나님의 은혜기운에 마쳤다.

목양신문 지면보기

네이버 검색창에서 ‘목양신문’ 접속후 ‘목양신문 보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목양신문 이메일
mok2677@naver.com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로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1)폐농성물질
1 손상된 신세포조직(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실함)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님)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 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 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 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 서울대 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 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 연구논문)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 (전북대 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①호 270만원 ②호 370만원 ③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제6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경준 목사)는 지난 6월 3일(월) 제6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증평 스포츠센터에서 가졌다.

올해로 여섯 번째로 치러진 지방회 한마음 체육대회는 지방회 27개 교회 45명의 목회자 및 사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하여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체육부장 조재호 목사(장대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신현찬 목사(기쁨충만교회)의 기도예 이어 지방회장 김경준 목사(순복음후영교회)가 마 11:28-39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이 쉬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쉬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



셨다"하면서 "오늘 경기도 상대편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온유와 겸손이 예의와 배려와 양보로 나타난다면, 지방회 체육대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도 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육위원장 김윤용 목사(증평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친 후, 체육부장 조재호 목사의 광고에 이어 곧바로 경기에 들어갔다.

심판 안용식 목사(증평 중앙감리교회)의 진행으로 청군(청주 동부권역 17개 교회, 팀장 최동순 목사)과 백군(청주 및 서부권역 17개 교회, 팀장 민병훈 목사)으로 나뉘어 공 물기, 족구B, 배구, 볼링, 투호, 피구, 족구A, 계주 등 총 8개 종목의 경기를 가졌다.

이날 경기는 청군이 735점, 백군이 825점을 얻어 백군이 승리하였으며, 3부 순서로는 시상 및 경품권 추첨이 있었다.

한편 이번 체육대회를 위하여 지방회장과 체육위원장이 각각 고급자전거 1대씩을 기증하였고, 그 외 중경회장들과 여러 교회에서 찬조금 및 상품들을 기증하여 풍성한 체육대회가 되었다.

끝으로 지방회장 김경준 목사의 폐회 선언과 중경회장 최동순 목사(삼산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체육 행사를 마쳤다.



제9차 전국사모회 실행위원회

섬김의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



김귀순 사모
전국사모연합회 회장

전국사모연합회(회장 김귀순 사모) 제9차 전국사모회 실행위원회가 지난 6월 17일(월) 오후 1시 총회본부 3층 성전에서 열려 교단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사명감당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회장 김귀순 사모의 사회, 1부회장 신명희 사모의 대표기도, 서기 김숙자 사모의 성경봉독, 직

전총회장 임웅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고전 3:9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의 동역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귀한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느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사모회 회원들을 축복했다.

회계 유순희 사모의 한글기도, 총무 김세희 사모의 광고, 임웅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드리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각종 회무를 논의하게 되었다.



2019년 상반기 계절학기 모집요강

1.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최종학교졸업 증명서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및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만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2.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년 6월 03일(월) ~ 2019년 6월 28일(금)
- 합격자 등록 마감
2019년 6월 28일(금) 오후 5:00
- 수업일정 : 2019년 7월 01일(월)~04일(목)까지

3. 등록선교헌금

- 등록선교헌금 : 800,000원(목회자 자녀50%)
숙식 개인부담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
예금주: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원

4.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7-0692, FAX: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총회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E-Mail : luvjx7@hanmail.net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원장 목사 임종달

전 세대가 함께 떠나는 믿음의 여정

| 300여년 동안 전해진 위대한 유산 |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단체관람 신청 | ☎ 02.2650.7942(친구사이)

facebook.com/cbscinema

수입/배급 CBS

TALK CBS시네마

전체관람개

6월 13일, 전국 극장 대개봉

SYNOPSIS

**천국으로 가는 여행자,
당신의 이름은 크리스천**

희망도, 기쁨도 없는 '멸망도시'에서 살아가던 '크리스천', 어느 날 발견한 한 권의 책에서 '천국도시'의 존재를 알게 된다.

왠지 모르게 책에서 눈을 떼 수 없던 그는 결국,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을 찾아 모두가 만류하는 무모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뛰어, 크리스천! 천국에 닿을 때까지!"

“다음세대를 세우는 창조과학”

한국창조과학회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MOU 체결

한국창조과학회 학술대회가 지난 5월 25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다음세대를 세우는 창조과학'이라는 주제로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개최됐다.

부산, 대구, 대전, 전남,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2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오전엔 한동대학교 정순홍 총장의 '창조주 하나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정창균 총장의 '오늘을 사는 신앙', 한윤봉 회장의 '창조 vs 진화, 진실은 무엇인가?'의 전체 강연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한국창조과학회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는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현재의 진화론에 맞서서 성경적 창조를 검증하고, 창조론에 기초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차세대에 교육하고, 성경적 창조신앙의 유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데 뜻을 같이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양 기관의 협력 분야에서 특별한 주목할 점은, 성경적 창조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다. 2019년 올해 상반기부터 교육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총 5학기 교육과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협약식은 한국창조과학회와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과 맺은 첫 번째 협약이며, 목회자들과 일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창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활발한 협력 사업을 기대해 본다.

이날 오후에는 일반세션과 전문세션(분과 1: 우주, 물리, 지질학 / 분과 2: 생명과학, 교육, 신학)으로 나누어져 진행이 되었다. 향후 본 학회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하계워크숍과 어린이와 청소년 비전캠프 등 여러 프로그램과 행사에도 많은 기대가 된다.

예감 전 감독 손선영 목사 원로목사 추대

새로운 사명 - 선한목자기념교회 통해 은퇴목회자 섬김다

예수교대한감리회 선한목자기념교회는 감독으로 예감의 위상과 거룩하고 신실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온 손선영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는 한편 조기은퇴를 결심하고 아름다운 승계를 통해 더욱 큰 헌신의 길로 들어서며 김창규 목사를 후임자로 세우는 '원로목사 추대식 및 담임목사 취임식 감사예배'를 지난 6월 13일(목) 부천시 소사구에 위치한 동교회 대성전에서 드렸다.

이날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담임목사 취임식, 3부 원로목사 추대식에 이어 4부 축하식으로 진행됐다.

한석호 목사(예감 인천지방회장)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는 양영선 목사(새문교회)의 기도, 이범식 목사(예감 총무국장)의 성경봉독, 예감 감독 조경행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기념교회에서 손선영 목사의 신앙지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자로 세워진 기념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특송함으로 의미를 더했다.

조 목사는 수 1:1-9 말씀을 본문으로 '소명자에게 주신 명령'이란 제하의 설교를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4000년 전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서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선영 감독님은 그동안 기념교회에서 많은 세월 동안 씨를 뿌렸으니 김창규 목사는 그 씨가 자라고 꽃이 피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할 줄 믿는다"고 전하고 참석자들에게도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했다.

조경행 감독은 김창규 목사의 서약을 받아 담임목사 취임을 선포했고, 김창규 목사는 손선영 목사가 기념교회 원로목사가 됨을 선포했다.

축하순서에서는 원형석 목사(창국제일교회)와 김창기 목사(예감 전 감독), 윤경학 목사(백석대 전 교수)가 권면과 격려, 축하를 전했으며, 축사와 몸전양, 선물 및 꽃다발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제9회 CTS 대한민국 어린이 합창제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지난 6월 15일(토) KBS홀에서 '제9회 CTS 대한민국 어린이 합창제'를 개최했다.

CTS 창사 24주년을 기념하고 어린이들에게 복음과 함께 기독교문화와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개최된 이번 합창제는 [광림교회 어린이 영어뮤지컬 '모래탑'], [목동제일교회 '아이노스소년소녀합창단'], [우이제일교회 '유치부 새싹성가대'], [하늘중앙교회 '드림엔젤스'], [CTS부산소년소녀합창단] 등 총 8팀이 참가했으며, 여의도침례교회 살롬랜드벨 연주와 마성의

하모니 유엔젤보이스가 특별공연으로 함께 참여했다.

마지막 순서로 세계적인 지휘자 윤학원 교수(CTS예수단 감독 겸 CTS소년소녀합창단장)의 지휘 아래 4백여 명의 참가 전원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연할 합창하여, 1천 500여 명의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CTS 고정원 사장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CTS가 기독교 문화를 방송으로 전하게 된 지 24년을 맞이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세대들과 함께 복음과 기독교 문화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CTS 대한민국 어린이 합창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으로 세상에 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발판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CTS소년소녀합창단장 윤학원 교수는 "하울링의 능력을 기르는 'CTS 대한민국 어린이 합창제'를 통해 아이들이 합창의 기쁨을 배우고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며, 찬양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음악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성령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생명 나눔에도 앞장

성령강림절, 전국 8개 교회 602명 성도 장기기증 희망등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그 능력으로 살아 가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을 기념하며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성령강림절 전국 많은 교회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성령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서부제일교회(담임 김한원

목사)는 지난 6월 9일 드린 1~4부 예배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 이하 본부)를 초청, 사랑 나눔 장기기증 희망등록식을 진행했다. 정립 50주년을 기념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한 김한원 담임목사는 '땀에 맺어진 밀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매 맺는 삶을 살자"고 이웃 사랑의 실천을 당부했다. 이어 본부 김동엽

사무처장은 장기기증운동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주인공들의 감동적인 사연 등을 전했고, 그 결과 모두 195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같은 시간 서울 영등포에서도 생명 나눔의 섬김이 이어졌다. 정립 58주년을 기념해 생명나눔예배를 드린 한영교회(담임 신정우 목사)는 이날 교회 로비를 생명나눔 전시공간으로 꾸몄다. 예배를 위해 교회를 찾은 성도들은 뇌사 장기기증으로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고 떠난 기증인과 숭고한 결정을 내린 유가족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접했고, 신정우 담임목사 역시 '행함과 진실함으로'라는 말씀으로 성도들이 생명나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독려했다. 이를 통해 163명의 성도들이 생명나눔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성령강림절인 이날 전국 8개 교회가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전북 군산 소재 두란노교회(담임 오동현 목사)에서 101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한 것을 비롯해 경기 광주 빛과소금교회(담임 정신성 목사) 67명, 부산 강서 지사동교회(담임 김재은 목사) 36명, 경북 울진 후포중앙교회(담임 김원주 목사) 34명, 서울 도봉 성능교회(담임 강성호 목사) 24명, 경남 고성 연화교회(담임 김재한 목사) 12명 등 생명 나눔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이 각지에서 잇따랐다.



<http://agpgs.aogk.org>

2019학년도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출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 오후 4:40분 까지 진행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천로역정’ 셀럽 추천 영상 공개!

크리스천 셀럽과 목회자들의 강력 추천!

바이블 어드벤처 <천로역정: 전국을 찾아서>가 언론의 호평에 이어 셀럽과 목회자들의 뜨거운 극찬 세례가 담긴 셀럽 추천 영상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천로역정: 전국을 찾아서>는 죄악으로 어두운 멸망 도시에서 살아가던 ‘크리스천’이 우연히 접한 한 권의 책을 통해 알게 된 천국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험난한 여정을 그린 바이블 어드벤처.

먼저 자녀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가수 박지현은 “아이들과 같이 봤는데 아이들이 한 장면 한 장면 놓치지 않고 신앙의 과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작품 잘 봤다”라고 전했으며, 가수 지두는 “아이들과 봐도 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어른들이 봐도 수많은 하나님의 마음들과 여정들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서 감사 드린다”, 전양사역자 이경미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손잡고 함께 관람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목동지구총교회 박성현 목사도 “어린 아이들과 같이 본다면 훨씬 유익할 것 같다”라고 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면 좋을 영화로 추천했다.

이외에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과연 내 삶은 왜 이렇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보시면 좋겠다” (장민혁 성우), “책으로만 읽던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양현중앙교회 이승섭 목사), “에나메이션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었는데 어른들이 보기에도 너무 좋은 영화였다. 내래한 신앙에 큰 경종을 주고 진정한 신앙의 길을 깨우쳐주는 멋진 영화였다” (서문교회 손달익 목사), “가족 모두 같이 감상하면 큰 은혜 받고 도전도 받을 수 있고,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있을 것 같다”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 등 원작의 감동을 극대화 시킨 <천로역정: 전국을 찾아서>를 적극 추천하고 있어 아직 관람하지 않은 관객들의 관람 욕구를 자극시키며 개인 관객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와 교회들의 단체 관람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기의 베스트셀러 [천로역정]을 원작으로 한 바이블 어드벤처 <천로역정: 전국을 찾아서>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드디어 전도에 눈을 뜨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 성서신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성서신학원에서 이사야서를 공부하던 중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의 소명을 받아 성서신학원을 그만 두고 47세에 2011년 호남신학대학교에 입학하여 2018년 호남신학대학교원을 졸업하였습니다.

학부 1학년부터 여수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다가 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통해 2015년 12월 27일 저희 가정에서 가족 4명이 첫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1일 상가 3층에 보증금 1천만원에 월 임대료 100만 원 상가건물을 얻었습니다. 어느덧 교회를 개척한지 3년이 지났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많은 성도들이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되다가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였지만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훈련을 받으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순천에서 사역한 동기 전도사로부터 박영수 목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저에게 박영수 목사의 현장 전도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도저히 부끄럽고, 두려워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박목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일 약했던 전도에 눈을 뜨게 하고 전도만이 이 시대 교회들이 살 길임을 가르쳐 준 박영수 목사에게 감사하며, 귀한 박영수 목사와의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들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세대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쉬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갑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꼭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 전도 방법을 통해 교회를 부흥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구도시 여수에서
숨쉬는교회 차옥송 전도사 올림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카페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몽골 빈곤아동 교육 및 자립 지원 협약

홀트·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1억5천만원 기금 후원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호현)와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이사장 정완규)은 지난 6월 11일 홀트아동복지회 본부 강당(마포구 양화로 19 소재)에서 몽골 빈곤아동 교육 및 자립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몽골 울란바타르시 친길테구 지역 빈곤가정 아이들을 위해 지원 센터와 게르 센터를 건립해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교육 및 빈곤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지역은 몽골 내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동 보육지원 욕구가 커 한지에 몽골 지원센터 및 게르센터가 건립되면 빈곤 가정 아동들에게 교육과 보육 서비스 제공 및 지역 주민들의 자립을 돕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2014년 몽골 바양주르흐 지역에 몽골홀트드림센터를 설립해, 지역 빈곤가정 아동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으며 올해 9월부터는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과 함께 제2센터를 운영해 몽골 빈곤가정 아동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호현 회장은 “한국도 해외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제는 해외 빈곤국을 돕는 나라가 됐다.”며, “홀트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 빈곤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기총, 제15차 한반도 복음평화통일 위한 인천기도회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최낙신목사, 수석상임회장 윤보환 목사는 지난 6월 16일(주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영광교회(담임목사-윤보환 감독)에서 그동안 제1차-서울 기도회로 시작해 유럽 여러 지역과 미국 여러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등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진행하는 중이제 제15차 복음통일기도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소서(엡 1:10)”라는 주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달인 유월애 제69주년 6.25기념을 앞두고 “한반도 복음평화통일을 위한 인천기도회”로 열렸다.



마음과 함께 국내 성도들의 뜻을 모아 합심해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통일된 미래의 희망을 가지기 힘든 이때에 개최되는 복음통일기도회이기도 그 어느 때 보다도 한반도의 복음평화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750만 디아스포라(해외동포)의 간절한

이번 복음통일기도회는 세기총이 주최 하고 세기총 복음평화통일기도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된다.

이날 순서는 대회사에 세기총 대표 최낙신 목사, 설교에 세기총 법인이사장 고시영 목사, 격려사에 세기총 초대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와 증경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축도에 세기총 증경대표회장 황의춘 목사, 대표기도에 몽골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동근 장로, 성경봉독에 세기총 상임회장 김종택 목사, 특별 기도에 세기총 상임회장 오영자 목사, 공동회장 조석상 목사, 박광철 목사, 박승호 목사에 이어 한금기도에 세기총 법인감사 나득한 장로가 맡게 된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부산 UN기념공원에서 야유회, 사랑의 교제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도사현 목사)는 지난 6월 6일(목) 오전 11시 부산 UN기념공원에서 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총무 이항구 목사(주전양교회)의 사회와 부회장 허만운 목사(순복음성산교회)의 기도로 시작하였다.

증경회장 강태진 목사(안동성곡교회)가 빌 2:5-12 말씀을 본론으로 '이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혼란한 시국과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천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처럼 예수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이어 증경회장 진영갑 목사(주전양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회장 도사현 목사(동해안순복음교회)가 광고를 통해 2019년도 전체



일정을 설명하였고, 직전회장 김영준 목사(갈릴리온소망교회)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제88차 정기총회를 통해 총회장으로 임명된 신재영 목사(새김전교회)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점심식사로 및

있는 회를 먹고 부산국립해양박물관과 UN 기념공원을 관람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그리고 부산 기장군에 있는 맛있기로 소문난 전복죽으로 저녁식사를 하였고 식사를 마치고 아쉬움 속에 인사하며 각자의 사역지로 향하였다.

목사안수식, 최선을 다하는 일꾼 다짐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정영진 목사)는 지난 5월 30일(목) 오전 11시 순복음갈릴리교회에서 김성규 전도사(순복음갈릴리교회)와 박해균 전도사(순복음주전미교회)의 목사안수식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정화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박영욱 목사(순복음참좋은교회)의 대표기도, 순복음갈릴리교회 로이찬양대의 찬양, 지방회장 정영진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의 빌 2:12-18 말씀을 본론으로 한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계속해서 정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2부 안수식은 안수위원장 유봉수 목사의 안수기도, 안수위원 최성진 목사, 박영욱 목사, 정영진 목사의 성의 책의와 악수 후 공포와 임



직중서 및 안수패를 수여하고, 증경 지방회장 최성진 목사의 축사, 재무 윤혜영 목사의

권면, 증경총회장 유봉수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순복음예루살렘교회 지방회 가입예배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최정식 목사)는 지난 6월 11일(화) 오전 11시 순복음예루살렘교회에서 제 59회기 광주지방회 1차 월례회 및

순복음예루살렘교회의 가입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조길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계 배영래 목사의 기도에 이어서 삼상 22:1-2 말씀을 본론으로 '아들람굴의 공동체'란 제목으로 지방회장 최정식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였고 증경지방회장 주덕영 목사의 권면, 증경지방회장 김정식 목사의 축사, 그리고 교단 증경총회장 김양인 목사의 축도로 1부 경건예배를 마치고 2부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안건으로는 2019년 추계 부부 수양회 일정을 10월 14일~16일까지 제주도에서 갖기로 하고 세부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작년 제주에서의 수양회가 너무나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는 회원들의 열망에 따라 다시 한번 제주도에서 수양회를 갖게 된 것이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유관영 목사)는 지난 6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뽕넬전원교회(담임 박종서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최강욱 목사의 사회로 표제옥 목사(성령알곡교회)의 대표기도, 최병진 목사(이산은혜와진리교회)의 설교, 김종호 목사(순창순복음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신 32:10 말씀을 본론으로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단, 교회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있음을 감사하며 기쁘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유관영 목사의 진행으로 각종 지방회 업무를 처리하였다. 지방회원들은 월례회가 끝난 후, 뽕넬전원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고 목욕교제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척서 야유회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만끽

일산지방회



일산지방회(회장 이진우 목사)는 지난 6월 10일(월) 강원도 삼척에서 야유회를 갖고 심신의 피로를 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이날 지방회원들은 지방회장 이진우 목사의 기도 인도로 한 마음을 되어 기도한 후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로 야유회를 떠났다.

장호항에 도착해 회원 목사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함께 배낭가를 신척하였으며 이동하여 레일바이크를 타고 페달을 밟으면서 하나님께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동율 목사 임직 감사 예배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전하세 목사)는 지난 5월 25일(토) 오전 11시 동두천시 평화로 2440-3에 위치한 화목한교회(담임 김경순 목사)에서 이동율 목사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임형순 목사(순복음아래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은금홍 목사(선한이웃교회)의 기도, 서기 안재봉 목사(순복음비전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전하세 목사(열린축복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전 목사는 빌린 4:7-11 말씀을 본론으로 한 설교를 통해 "목회자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사로 봉사해야 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섬겨야 함"을 증거했다. 이어



본 교단 직전 총회장 임웅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임직식이 계속되었다. 임직식에서 이동율 전도사(화목한교회)

는 경기지방회 안수위원들에 의하여 목사로 안수되고 임직되었고 축하와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충북사모회, 섬김의 동역 속에 심과 회복

충북지방회 사모회

충북지방회(회장 김경준 목사) 사모회(회장 신명희 사모)는 지난 6월 11일(화)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한 덕유산에서 사모회를

가졌다. 이날 모인 18명의 사모회원들은 두 대의 승합차에 나눠 타고 출발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모든 사모들은 힘을 즐기고 돌아왔다. 목회현장에 잠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행복을 느낀 지방회 사모들은 이런

자리를 자주 갖기를 바라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추부에 있는 하늘물빛정원에 들려 차와 말뚝을 나누고 사모회장이 대접한 버섯전골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세상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권점식 목사)는 지난 6월 18일(화) 오전 11시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화립정1길에 위치한 한우리교회(담임 김진희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각종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성기찬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신홍섭 목사의 대표기도, 증경 지방회장 최용운 목사의 롬 4:1-3 말씀을 본론으로 한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의 설교, 회계 이순애 목사의 헌금기도, 증경 지방회장 박기만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권점식 목사(순복음불루른교회)의 인사말 후 교단·지방회 보고사항을 전달하고, 오는 8월 25일(주)



일) 한우리교회에서 장로 2명, 권사 2명, 안수집사 3명에 대한 임직식을 가질 것을 알렸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 회원들은 한우리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처로 돌아갔다.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감사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왜냐면 -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은 더 -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왜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의 이유인 사람은 더 -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며 진정으로 감사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몽골기총 가조르트 선교관에서 알코올 중독자 치유 캠프

〈민음의 기쁨〉을 주제로 한 여름집중 캠프의 한 프로그램

몽골기독교총연합선교회(법인회장 김동근 장로)의 가조르트 선교관에서 알코올 중독자 치유 캠프가 열렸다.

몽골기총을 통해 세워진 톨초 시면23편교회의 현지 담임사역자로 몽골기총이 목회지원하며 동

역하고 있는 자르갈란트 사역자가 매주 화요일마다 개최하고 있는 '말씀나눔'을 확장하여 여름 집중 코스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한 프로그램이다.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대상으로

로 한 세미나는 함께 찬양과 기도, 상담 등의 시간을 가졌다. 〈민음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열린 캠프는 '주인에서 말씀과 예배로 치유와 회복을 누리며 함께하는 민음의 가족으로 기쁨을 나누며 힘을 얻는 것'이 취지이다.

6월 13일(목)~15일(토)까지 2박 3일간 열린 캠프에는 참가대상에 특별한 제한 없이 신앙생활을 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사람, 신앙상담이 필요한 사람, 특별한 영역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 등 개인과 가족단위로 함께 하는 자리였다.

시간마다 나눔과 상담이 이어지고 함께 예배와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프는 7월 2일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영혼회복을 위한 일이라면 시간과 공간과 맘과 수고 등 이낌없이 바치고 있는 몽골기독교총연합선교회는 몽골기총 회관이 더 많은 몽골인들이 은혜받는 장소가 되길 바라고 있다.



홈페이지 : www.agtc.or.kr

2019학년도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1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리
- 2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3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1 입학원서(소정양식)
- 2 담임목사 추천서
- 3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4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5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6 건강진단서(HIV포함)
- 7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8 가족관계증명서
- 9 반영합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사 설

북한의 침략전쟁 6.25

다시 6.25를 맞는 시점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스웨덴을 방문하여 6.25 당시 아전병원단을 파견했던 국가 스웨덴 면전에서 '반민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면서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슬픈 역사를 기렸을 뿐'이라고 했다. '북한이 어느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남한은 나라가 아닌가? 6.25는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슬픈 역사'일 뿐 '침략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인가?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벌어진 6.25다. 북한의 남침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자유우방의 피로 지켜진 6.25다. 북한의 침략전쟁을 교묘히 부정하고 일방적 피해를 입은 우리를 쌍방과실의 한 당사자로 전락시킨 대통령 연설이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는가. 국제사회의 신뢰에 미사일 실험으로 답하고 있는 북한이다. 그런 북한에 대한 신뢰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희망사항이다. 대통령의 아긋난 신념과 믿음을 근거로 국가를 안보위기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북한만 바라보고 북한만 챙기는 대통령이란 비판에 더해 북한을 위해 엄연한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시키는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귀국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대한 무책임한 신뢰가 가져올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 위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을 위해

자행되는 문정권의 역사왜곡 역시 철저히 막아내고 그에 따른 책임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물을 것이다."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6·25전쟁' 대신 '한국전쟁'이라고 표현하고, 북한의 이른바 '조국해방전쟁' 공훈자로서 최고 수준의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을 미화하기까지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가관·역사관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다. 호국 영령들을 칭송하고,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발굴과 애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호국 영령이 지키려는 가치는 무엇이었으며, 만들려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으며, 그리고 목숨 걸고 어떤 적에 맞섰던 것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그 뜻을 이어가는 것이 '현충'의 본질이다.

호국 영령들은 북한 공산 세력의 6·25 기습남침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그것이 토대가 되어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북한은 세계 최빈국, 최악의 세습 독재 체제, 핵무기로 민족 공멸을 위협하는 악성 집단이 됐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6·25전쟁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내전은 한국전쟁 70년'이 되는 해라고 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책임을 회색시켜 주려한 배려일까.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총, 칼에 죽어간 이들에게 자부심은 커녕 아픔을 주어진 안 된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신 11:12)

교육자들이 교육의 기본부터 보여주기를

12월 전교조 소속 1,000여 명의 교사들이 서울 도심에서 '법외노조 취소'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과 교원노동권과 정치기본권 확보, 그리고 해고자 원직 복직을 주장하며 시위를 한 것이다. 이들의 단체행동은 현재 인정되지 않는다. 법외 노조가 되면,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권리가 없는 '임의 단체'가 되기 때문이다.

'법외 노조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현 정부를 더는 쫓발정부라고 부를 수 없다며 이들 1,000여 명의 교사들이 등지고 나온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누가 책임지는가? 학생이 없이 교사가 존재하는가? 학교 학습의 현장을 떠나 노동자처럼 행동하는 교사들을 학생들이 인정하겠는가? 그것도 불법으로.

문제는 교육부의 태도이다. 이들 교사들의 연가 투쟁에 대하여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으로 알려진다. 뿐만 아니라, 최근 유엔에 교육부장관은 전교조를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파트너'로 삼겠다고 하였다. 아찌 불법 단체와 정부가 정책적인 파트너가 되는가?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교사들이 하면서, 교단(敎壇)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겠는가? 학생들은 지식만 전수받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다. 교사들의 행동과 몸짓 하나, 모두가 교육의 표본이며, 인격의 가르침이다.

교육부도 전교조도 모두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적 입장에 서 있음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감이 엄중함을 알아야 한다. 그야말로 교육자들이 교육의 기본부터 보여주기를 바란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채위원장 조동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산동·부산·경남 지방회연합

영남동·대구경북 구역장 세미나

강사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정영진 목사
교단 서기
순복음갈릴리교회

일시 : 2019년 7월 9(화) 저녁 7시 30분
장소 : 예수교대한 순복음갈릴리교회
 (담임 정영진 목사 010-3590-3156)
 주소 :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22번길 16 · 051)623-3927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제1 학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9년 6월 17일(월) ~ 2019년 8월 29일(목)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 2019년 6월 17일(월) ~ 2019년 8월 28일(수)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 2019년 7월 8일(월) ~ 2019년 8월 29일(목)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